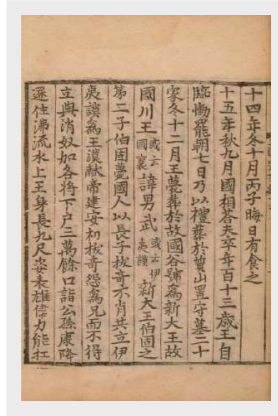


고국천왕[故國川王]

명재상 을파소를 등용하고 진대법(賑貸法)으로 백성을 구제하다

미상 ~ 197년(고국천왕 19)



삼국사기 고국천왕 기사

/ 한국사데이터베이스(국사편찬위원회) /

1 개요

고국천왕(故國川王, ?~197)은 179년~197년까지 재위한 고구려 제9대 왕이다. 독자적이고 자치적인 다섯 부(部)가 연합하여 성립한 고구려에서 왕권 강화를 추구한 왕으로 평가된다. 그는 상대적으로 낮은 신분 출신의 을파소(乙巴素)를 능력만 보고 중용하여 나라를 잘 이끈 현명한 왕이자, 어려운 백성들을 구제하는 진대법(賑貸法)을 시행한 인자한 왕이기도 하다.

2 가계와 생애

고국천왕은 179년~197년 동안 재위한 고구려 제9대 왕으로, 국천왕이나 국양왕(國壤王)이라 불린다. (고)국천이나 국양 등은 왕릉이 위치한 곳으로 고구려 전기 수도인 국내성 지역의 특정 지명을 의미한다. 고구려에서는 이처럼 왕릉의 위치를 왕의 시호로 삼는 경우가 많았다. 왕실 계보상으로는 시조 주몽의 5세손이며 본명은 남무(男武)이다. 혹은 이이모(伊夷謨), 이모(夷謨)라는 기록이 있고, 『삼국사기(三國史記)』에는 전왕인 신대왕(新大王)의 둘째 아들로 되어 있으며, 그가 즉위할 때 형인 발기(拔奇)와 분쟁을 벌였다고 기술되어 있다. 관련사료 하지만 이 이야기는 고국천왕의 사후 그의 두 동생인 발기와 연우(延優, 이이모라고도 한다) 사이의 왕위계승분쟁이 고국천왕의 일로 잘못 알려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그의 이름이 이이모라거나 즉위 시 형과 분쟁이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그는 176년(신대왕 12) 태자로 책봉되었고, 부왕이 179년 12월 사망하자 왕위를 계승했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고국천왕은 키가 9척(약 210cm 정도)이고 외모가 늙름하고 홀륭했으며 힘이 매우 세고, 남의 말을 잘 듣고 판단하여 일을 처리하며, 관대함과 용맹함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었다고 한다. 관련사료 곧 문무를 겸비한 인재라 할 수 있다.

왕비는 우씨(于氏)로 연나부(椽那部) 출신으로, 고구려 왕비들은 연나부 출신이 많았다. 보통 계루부(桂婁部)가 연나부와 손잡고 5부 연합체인 고구려의 주도권을 장악했기 때문에 보고 있다. 동생으로 발기(發歧)와 산상왕(山上王)이 되는 연우(延優), 그리고 계수(鬍須)가 있었다. 왕비와의 사이에서 자식이 없어, 그의 사후 둘째 동생 연우는 왕위에 오른 뒤 왕비 우씨와 결혼하였다.